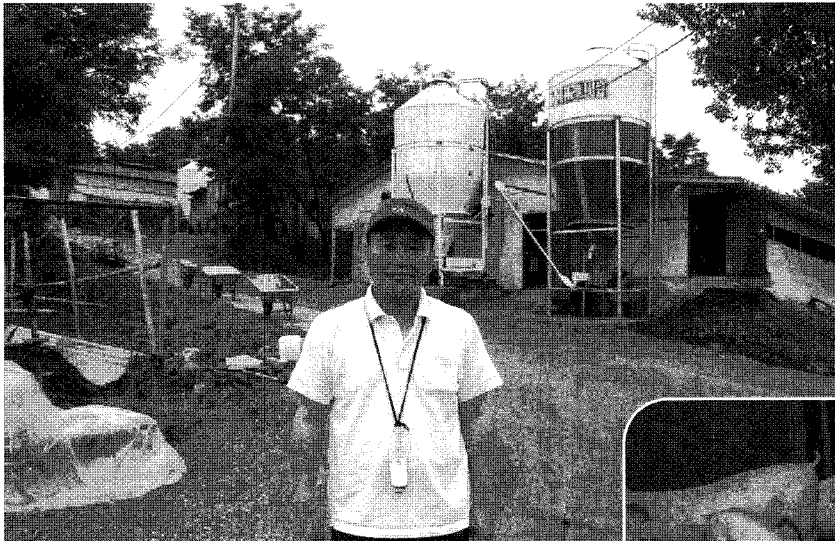


PED 발생을 딛고 새롭게 도전한다

모든 600두 규모의 자돈 전문 경영농장인 청은농장은 지난 4월 17일 PED가 발생했다. 약 1,500두의 자돈이 순식간에 죽어 나갔고 이강영 사장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미생물 첨가제 투입, 극약처분이라는 인공감염과 백신 등 많은 노력 끝에 5월 17일, 약 한 달 만에 차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PED를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사장은 막심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생산시스템이 흐트러졌지만 새롭게 양돈장을 운영한다는 신념으로 또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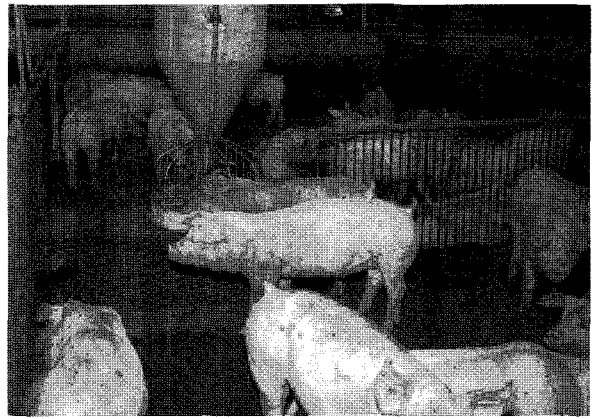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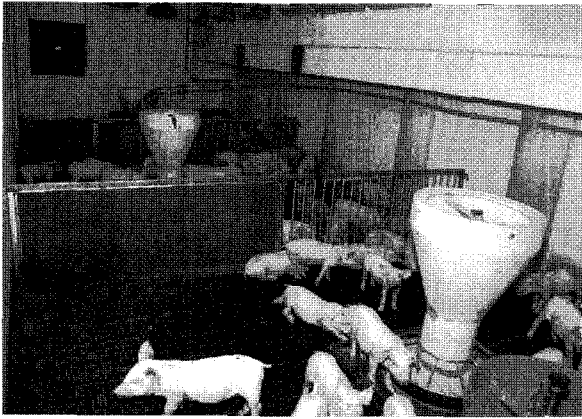
- 취재 조진현 -



▲ 청은농장 이강영 사장



▶ 5월 18일 이후 태어난 자돈들은 PED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 청은농장은 임대농장을 개·보수한 모든 600두 규모의 번식 전문 경영농장이며 6곳의 위탁장을 두고 있다. 작은 자기자본에 비해 큰 규모의 양돈장이다.

모든 600두의 번식전문경영농장 운영

약 4년간 동물약품 영업을 하고, 예산에서 사료 특약점을 9년여간 해 온 이강영씨는 5년여전 농장을 임대하여 양돈업을 시작했다. 약품 및 사료영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한 농장을 개·보수하여 모든 전문경영 농장으로 만들었으며, 여섯군데의 위탁사업장을 섭외하여 5,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을 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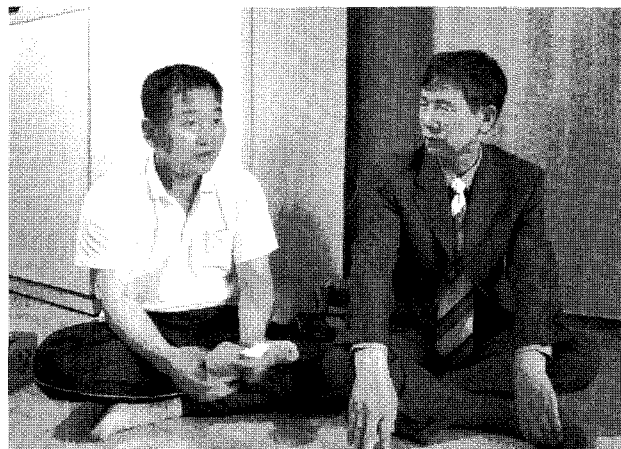
청은농장은 자돈을 약 9주인 65일령까지 30kg 내외로 키워서 위탁장에 보내고 있으며, 적은 고정자본에 비해 임대돈사와 위탁장을 활용한 덕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청은농장의 연평균 이유두수는 95두로 나름대로 높은 성적을 내고 있었다.

4월 17일 급성 PED 덮쳐

청은농장에 PED라는 불청객이 찾아 온 것은 4월 17일. 태어난 지 3~4일령 된 자돈들이 토하고 설사를 시작했고 곧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규모 폐사로 이어졌다. 한 복 자돈 중 몇

마리는 살고, 몇 마리는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돈사 안에 살아남은 자돈이 한 마리도 없이 모조리 쓸어갔다. 주간 30복을 이루했던 청은농장은 1주마다 300여 마리의 자돈들이 죽어 나갔고 6명의 직원들은 폐사된 자돈을 치우기에 급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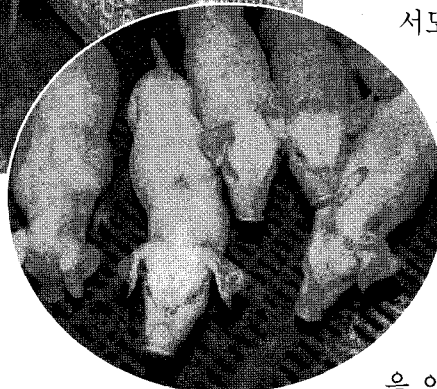
위탁 사업장에 자돈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이강영 사장으로서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고, 이 사장은 농장을 폐쇄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시작하는 마지막 방법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 청은농장 이강영 사장(좌측)과 미생물 첨가제를 공급한 설천바이오 박한웅 대표.



▲ 청은농장은 급성 PED 발생 후 백신과 인공감염, 각종 수의사 처방, 미생물 첨가제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고 발생한 지 약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정되기 시작했다.



안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교훈으로 활용

청은농장은 PED 발생을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이 사장은 PED 발생 후 사독백신과 각종 수의사 처방, 인공감염까지 시도해 보았으며, 면역기능을 상승시키고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미생물 첨가제를 투여했다. 다양한 노력 끝에 5월 15일 후에야 비로소 PED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 후 5월 18일 태어난 자돈에서는 PED로 인한 폐사가 발생되지 않았고 이 사장은 한숨을 돌렸다. 이 사장은 '절망적인 양돈업에 희망이 비춰진 느낌'이라고 그 당시의 심정을 전한다. 하지만, 6월 7일 700두를 마지막으로 위탁장에 보낸 후에는 5주간 단 한 마리도 보낼 돼지가 없을 것이라며 씩씩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한편 이 사장은 PED가 진정되는데 미생물 첨가제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다. (주) 설천바이오에서 생산하는 이 미생물 제제는

PED 및 PMWS 예방을 위한 보조제로서 평소에는 사료 톤당 2kg씩, 질병 발생시에는 3kg씩 첨가한다고 하며, 음수 등에도 사용한다. kg당 가격은 6,000원 썩이다. 이 사장은 "PED 발생능가는 꼭 한번 써보기 바란다"며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우리 농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육성돈에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차단방역과 소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다"는 이 사장은 앞으로 기본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한다. 또한 질병 발생이 없는 농가들에게도 "한 순간의 방심과 조금 귀찮다고 소홀한 부분이 양돈장을 폐업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며 다시 한번 내 농장의 차단방역을 점검해 보기를 권유했다.

그리고 이 사장은 환경개선제 및 미생물 첨가제에 관해 "2천원짜리부터 1만원짜리까지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가격대가 있으나 농가들이 품질을 알지 못해 구입에 애로를 느낀다"며 농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와 품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돈**